

Experience Report (파견결과보고서)

성명	이희찬	학과(전공)	전산학부
학위과정	학사과정	학번	20180532
파견대학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파견(참여)기간	2024.01.10 - 2024.05.10
파견 프로그램명	NTU GEM Trailblazer AY23/24 Semester 2		

1. 출국 전 준비사항

A. 프로그램 지원과정

Campus Asia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이메일을 받고 지원했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이유, 영어 성적, 듣고 싶은 강의 등에 대한 정보를 제출했고, 담당 선생님과 교수님과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면접은 한국어와 영어 둘 다 사용해서 진행되었습니다.

학내 선발 과정을 거치고 나면 NTU 측에 교환학생 Application을 넣을 수 있게 됩니다. NTU에서는 시간을 꽤 들여서 문서를 검토합니다. NTU 측에 신청을 넣고 1달 이상 지나서 합격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알려줬습니다. 학내에서 선발된 후 NTU 측에서 탈락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제가 듣기론 기존 KAIST에서 듣던 수업과 너무 다른 내용을 수업을 들으려고 하는 경우에 NTU 측에서 거절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B. 파견 대학에서의 안내

NTU에서는 e-welcome package를 보내주는데, 앞으로 처리해야 할 비자 관련 문제, 기숙사 관련 문제, 계정 관련 정보 등을 알려줍니다.

기본적으로 Letter of Enrollment가 오며, 이 문서는 KAIST에 미휴학 파견을 신청할 때도 필요하고 싱가포르 입국 심사 시에도 확인합니다.

NTU GEM Trailblazer Portal이라는 사이트의 링크와 계정에 대한 안내가 올 것인데, 이 사이트에서 오피수락, 기숙사 신청, 비자 관련 문서, 그리고 수강신청 등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E-welcome package에 일정과 함께 자세히 설명되어있으니 그 정보를 문제 없이 따라 하면 됩니다.

입국 전에 온라인 설명회도 진행하는데, 참여하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C. 비자 신청 (비자 유무, 신청방법, 소요기간, 경비)

출국 전에 싱가포르 이민청 ICA에 Student Pass 신청을 해야 합니다. 포탈이 활성화되고 며칠 내로 각

학생을 위한 SOLAR Form이 업로드 되고, 해당 정보를 이용해 ICA 사이트에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 단계가 문제 없이 마무리 되면 IPA Letter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이 IPA Letter는 Student Pass가 나오기 전까지 임시 비자 역할을 하고, 입국 심사, 추후 비자 발급 과정에서 필요합니다. 이는 일회성 입국 비자라서, 만약 Student Pass가 발급되기 전에 싱가포르를 나가버리면 돌아올 때 입국할 수 있는 비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싱가포르에 들어오기 전에 여행을 하든가, 아니면 Student Pass가 발급된 후에 여행을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NTU 캠퍼스에 도착하면 바로 ICA 사이트에서 Step 1에 해당하는 문서 작업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Step 1이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저는 이유는 몰라도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 받아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개강 첫 주에 ICA에서 캠퍼스로 직접 STP를 처리해주려 옵니다. 이때 Step 1과 Step 2(Payment)가 되어있지 않으면 따로 약속을 잡고 1시간이 넘는 거리에 있는 ICA로 가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나마 덜 기다리고 빠르게 할 수 있는 On-campus 세션에 참가하시길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 Step 1이 On-campus 세션 날까지 처리가 안되었는데, 그냥 무턱대고 가서 제출은 했는데 승인이 안됐다고 하니 우선 처리하라고 전할테니 오후에 다시 오라고 해주셨습니다. 다행히 점심 쯤에 승인이 되었고 그날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거 할 때 Local 전화번호가 필요합니다. 밑에서 설명할거기는 한데, local call이 되는 USIM/eSIM을 사용하시는게 좋습니다.

On-campus 세션 전에 COVID 백신을 접종했다는 것을 인증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모르겠으나, 백신 접종 확인서를 따로 외부 기관에 들고 가서 확인을 받고 그 기관에서 전산 상에 백신 정보를 등록해줘야 합니다. 공공기관도 있지만 제가 갔을 땐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해서, 그냥 근처 클리닉 중에서도 해당 업무를 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빠르긴 하지만 돈이 들어서, 돈에 여유가 없다면 공공기관 쪽으로 빨리 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며칠 후 Student Pass가 발급되어 이메일로 도착하면, Singpass라는 앱으로 비자 정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크게 쓸 일은 없는데 가끔 관광지에서 Resident 혹은 학생일 경우 할인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Student Pass도 Resident 취급해주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우 Singpass를 보여주는게 훨씬 편했습니다.

D. 항공권 구입 및 비용

저는 바보같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각각 편도로 끊자! 라고 생각해서 돈을 거의 두 배를 쓴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 갈 때 싱가포르항공, 돌아올 때 대한항공 편도를 각각 해서 총 120만원을 썼습니다. 근데 티웨이항공 같은 비교적 저렴한 항공도 있고, 왕복 항공권으로 대강 끊어놓고 나중에 돌아오는 비행기는 일정 변경을 하는게 훨씬 싸게 먹힙니다. 부디 60~70만원 안쪽으로 해결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E. 보험 가입 방법 및 비용

저는 다른 나라 여행할 생각이 없어서, 싱가포르만 넣어서 4달 유학생 보험을 신청했고 옵션을 좀 조정

해서 KB손해보험에서 16만원 정도의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의도치 않게 홍콩 여행을 한 번 다녀오게 되었는데, 그 경우에는 외국에 있어서 한국 보험 회사의 여행자 보험을 들 수 없더라고요. 근데 싱가포르 여행자 보험은 그렇게 저렴하지 않아서, 가급적이면 한국에서 보험 들 때 한 큐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친구가 없어서 그닥 안돌아다녔는데, 듣기로는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는 너무 가까워서 부담 없이 다녀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국가는 포함해서 보험을 드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F. 수강신청 (강의 수강도 함께한 경우) / 연구실 배정 (연구 참여 프로그램인 경우)

처음에 지원서 작성할 때 듣고 싶은 강의를 작성할건데, 그대로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좀 폭 넓게 적어도 됩니다. 다만 컴퓨터 공학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수업이 교환학생에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를 감안해서 지원서 작성 시점부터 Restricted course 리스트를 확인해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전산 수업 중에서도 극소수의 수업들은 교환학생에게도 열려있습니다. 그걸 잘 찾아보시고 마음에 드는 강의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NTU 교환학생은 수업을 하나 들으려면 좀 귀찮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GEM 측에 듣고 싶은 과목을 제출한 뒤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받은 과목에 한해서 STARS라는 시스템을 통해 진짜 수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기한 것처럼 지원서에 적은걸 그대로 들어야 하는건 아니고, 포탈에서 원하는 과목을 리스트업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GEM에서 이를 검토 후 각 과목에 대한 승인, 거절 여부를 알려줍니다. 또한, GEM에서 그 중 최대 4개 과목까지는 미리 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STARS를 처음 들어가면 이미 몇 개의 수업이 미리 신청되어있을 것입니다. 그 시간표를 베이스로 수업을 변경하거나 취소, 추가 신청을 하면 됩니다. 지금껏 고려하지 않은 아예 새로운 수업이 눈에 들어오면 또 GEM에 승인을 받고 신청해야 해서 살짝 번거롭습니다.

저는 체육 수업을 듣지 않았는데 체육 수업은 NTU에서도 인기 수업이라 GEM에서 넣어주지 않고 직접 수변 기간에 노력할 수 밖에 없습니다. KAIST에 비해 드롭 기간이 짧기 때문에 빠른 결단을 해야 합니다.

저는 연구도 병행했는데, NTU Faculty 리스트를 열심히 뒤적거리며 제 연구 흥미 분야와 맞는 분께 CV, Transcript와 함께 메일을 보내서 컨택했습니다. 처음에 답변이 없어서 며칠 후 한 번 더 리마인드 메일을 드려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왜 학부 교환학생이 연구를 한다는거지 싶어서 처음에 넘기셨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메일이 왔을 때 교수님께서 KAIST가 뭐지 싶어서 찾아보니까 유명한 학교라서 받아줬다고 하더라고요. 간판 덕을 봤습니다.

2. 학업 관련

A. 강의 수강 (수업 환경, 수업 내용, 수업 방식, 과제, 시험, 강의 평가 등)

저는 Machine Learning, Cloud Computing, Chinese Level 1을 수강했습니다.

두 전공 수업의 경우에는 둘 다 현장 수업도 진행하나 온라인 실시간 혹은 영상 업로드도 해주어서 수업에 가도 사람이 없습니다. Machine Learning의 경우엔 200명 가량의 학생이 수강하고 있음에도 수업 시간에 가면 10명 이하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교환학생이 전산 전공을 듣지 못하게 한 것은 정원 문제가 아니라 이런 환경이라 아예 수업을 안들을 것 같아서 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학과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업에서 알게 되는 로컬 학생이나 다른 교환학생이 없었습니다.

NTU는 일단 출석 점수와 중간고사가 없고 (중간고사는 과목에 따라 다르긴 하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말고사 몰빵인 경우가 많습니다. Machine Learning의 경우 프로젝트 40%, 기말고사 60%의 순도 높은 성적 산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Cloud Computing은 과제 30%, 프로젝트 30%, 기말고사 40%였으나 과제도 두 번 밖에 없었고, KAIST에 비하면 평상시 로드가 훨씬 덜한 편입니다.

제가 들은 전공 수업들은 특별히 어렵다는 생각은 안들었고, 시험 문제들은 비교적 정직하게 나온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심해서 다른 전공 과목 족보도 봤는데, 난이도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Cloud Computing은 내용이 넓은데 특정 내용을 갑자기 깊게 파는 경우가 많았는데, 정제된 커리큘럼이 없고 교수님의 취향이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NTU는 학교 차원에서 Past year papers를 제공합니다. 답안은 과 학생회에서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인기 과목은 없는데, 주요 과목들은 학생회에서 답안을 만들어서 제공하더라고요. 저는 SCSE Club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NTU는 시험을 보고 나서 결과가 바로 나오는게 아니라 채점 결과 및 Grade를 확인하는데 한 달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도 저도 이걸 쓰는 시점에서 성적은 모릅니다.

중국어 수업의 경우에는, 제가 영어를 그리 잘하지 않는데 영어로 아예 모르는 언어를 새롭게 배운다는 점이 부담이었습니다. 그래도 교수님이 잘 알려주셔서 결과적으론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아마 한자 문화권이 아닌 지역에서 온 학생들 입장에서 어렵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기초 중국어를 조금 알아두면 싱가포르에서 나쁠건 없습니다. 가끔 식당에서 대기 번호를 중국어로 불러줄 때가 있는데 그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만약 알고 있는 언어 (이전에 수업을 들은 적이 있는 언어) 수업을 들으려면 따로 레벨 테스트를 봐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 연구 참여 (연구 환경, 연구 주제, 연구 방식, 연구 결과 등)

사실 교수님 바이 교수님일 것이라 이 부분은 남길 수 있는 조언이 없습니다.

저는 Human-Computer Interaction 필드의 연구를 하고자 했고, UI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Lee Chei Sian 교수님과 컨택에 성공해서 교수님께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서포트하게 되었습니다. HCI 필드가 KAIST에서는 대부분 전산학부에 있지만, NTU에서는 HCI 연구가 Wee Kim Wee School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이라는 학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이 학과의 특징인지 이 교수님의 특징인지는 모르겠지만 연구실이 따로 없어서 그냥 저는 제 할 일 알아서 하고 1주일에 한 번 씩 사수님과 만나서 진행상황과 의견을 주고 받았습니다. 주제는 대학생의 Procrastination을 Digital Nudging 요소로 해결하기, LLM을 이용한 학습 과정에서 Fact-check를 Digital Nudging으로 유도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저는 Ideation과 Demo Implementation에 참여했습니다. 학기 초에는 학기가 끝날 때는 유저 테스트까지는 한 번 해보고 싶었는데, 사수가 Part-time PhD 과정을 하고 있는 분이셔서, 바쁘시다보니 많은 진전을 이루진 못했습니다. 구현까지 마치고 한 프로젝트는 사수님께, 다른 프로젝트 하나는 박사 1년차 분께 넘겨주고 왔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개발한게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 않은데, 교수님께서 좀 마음에 드셨는지 이걸 이용해서 논문을 쓰테니 그때 저자에 이름을 넣어주겠다고 하시긴 했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법입니다.

C. 학점 인정

아직 학점 인정을 하진 못했습니다. 7월 쯤 실물 성적표가 학교로 보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연구 학점 인정에 있어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KAIST 개별연구 같은 연구 학점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NTU에서 이와 유사한 연구 학점 수업을 들어야 하나, 제가 연구를 하게 된 WKWSC는 유사한 과목이 Final Year Project 밖에 없고, 이 과목은 2학기 연속으로 수강해야지만 학점을 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연구학점을 받는 것은 포기했습니다. 아마 이 기준은 학과마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조금 늦게 물어봐서 수강 학점 조정에 어려움이 있었으니 빠르게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GEM Office에 연락해서 물어보면 감사하게도 하루 이틀 내로 알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연구 활동은 논문이 나오지 않는 이상 딱히 기록으로 남는건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마 NTU에서 연구 활동을 하는 학생에 대해서 해당 활동을 어떻게 정량적으로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3. 비용

A. 기숙사 (숙박)

기숙사비는 작년까지만 해도 지원이 되었다고 들었는데, 여러가지 사정으로 이번 학기부터는 기숙사비를 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4달 이용하는데 1700SGD 가량을 지불했습니다. 다만 제가 살았던 기숙사는 NTU에서는 상위권에 속하는 기숙사로 들었고, 에어컨도 있는 방입니다. KAIST 기숙사비에 비하면 너무 비싼거 아닌가 싶었는데, 우리 학교 기숙사비가 비정상적으로 싸다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B. 식사

캠퍼스 내에서 정말 저렴하게 한 끼 먹으려면 3.5SGD로도 뭔가 먹을 수 있긴 한데, 평균적으로 한 끼에

7SGD 정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 돈으로 7,000원 가량이네요. 다만 음료수도 사먹어야 하고 간식도 이것저것 사서 먹다보니, 학내에만 있더라도 식비에 하루 평균 25SGD는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딱히 아껴야 한다는 생각을 안하고 살아서 정확히 재본 적은 없습니다. 만약 돈을 아껴야 하는 상황이라면 여러 캔틴에 있는 mixed veg 라는 반찬 몇 가지를 선택해서 먹을 수 있는 기사식당 스타일을 잘 이용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만약 학교 밖에서 뭔가 먹으려고 하면 별거 아닌 식당인 것 같아도 20SGD까지는 각오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1주일에 한 번 씩은 Jurong Point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싱가포르의 식당은 10% 세금, 10% 서비스 차지가 추가로 붙는 경우가 많아서 가격이 예상보다 비싼 경우가 많았습니다.

술이 조금 비싼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술을 그리 즐기는 편이 아니라 가끔만 먹었는데, 어디 가서 맥주 작은거 한 잔 먹으려 해도 만 원이 넘습니다. 다른 술 좋아하는 친구한테 듣기로는 싱가포르 술이 너무 비싸서 저렴한 맥주 캔 여러 개를 사놓고 먹는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술 좋아하시는 분은 돈이 꽤나 들 것 같습니다.

C. 기타 생활비

싱가포르 관광지에 갈 때는 돈이 꽤나 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기왕 가는거 돈 쓰는게 낫긴 하더라고요.

같은 음료를 사더라도 세븐일레븐에서 사는거랑 슈퍼마켓에서 사는거랑 가격이 2배씩 차이가 납니다. 슈퍼마켓은 North Spine에 있는 Prime이나, Jurong Point에 있는 Fairprice에 자주 갔던 것 같습니다. Jurong Point에 DONDONDONKI라고 일본의 돈키호테 브랜드의 슈퍼마켓 버전이 있는데, 이 곳도 자주 이용했습니다.

싱가포르에 반 년 이상 거주하는 학생들부터 싱가포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싱가포르 공식페이 서비스인 NETS로 수많은 결제가 이루어지지만 한 학기만 가는 학생은 이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어느정도 현금은 반드시 구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학생증은 NETS FlashPay만 지원하고, NETS QR 코드량은 다릅니다. 저는 트레블월렛 카드를 평소에 사용하고, 현금이 필요할 땐 그 카드를 이용해 ATM에서 인출했습니다. 싱가포르에는 ATM이 굉장히 흔하고, 많은 사람이 줄 서서 사용하고 있는 걸 자주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4. 학교 캠퍼스

A. 학교 안 시설 및 분위기

수업동 건물들은 KAIST에 비하면 좀 낡아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The arc, The hive, Gaia 같은 멋진 건물들도 있고, 학교 캠퍼스도 전반적으로 정원 같은 느낌이 나기 때문에 보기에 좋습니다. 교내에는 무료 순환 버스인 Red, Blue, Green 같은 버스도 있으며, 캠퍼스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버스인 179, 199

도 있어서 교통이 꽤 편리합니다. 몇 년 내에는 주룽지역선이라는 전철도 캠퍼스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딜 가든 공사 중입니다. 그리고 관리를 꾸준히 한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잔디도 자주 깎고, 물 청소도 자주 하고, 고장난 것도 빠르게 고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기본적으로 학교에 사람이 많다보니 캠퍼스에 활기가 확실히 돌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North Spine에는 매번 무슨 행사가 진행 중에 있고, 길 가다 보면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B. 주변환경 및 분위기

학교 앞으로 나가면 Jurong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은 관광지라기보다는 정말 현지인들이 생활하는 지역입니다. 동네는 조용하고, 수많은 국민임대주택(HDB)들을 볼 수 있습니다. 현지인들이 실제로 어떤 동네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Jurong Point와 Pioneer Mall에 자주 갔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전반적으로 그렇겠지만 안전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물론 관광, 노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센트럴까지 나가야 원하시는 분위기가 있을 겁니다.

C. 그 외 사항

5. 언어 사용

학교 수업, 과제, 팀 프로젝트, 연구 등의 활동은 100% 영어로 진행됩니다. 로컬 학생들은 싱글리시라고 부르는 특이한 억양과 수상한 단어들을 섞어 쓰곤 하는데, 저 같이 뭔가 영어가 어색해보이는 외국인을 상대로는 최대한 Formal한 영어를 사용해서 얘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도 액센트가 특이해서 처음엔 알아듣기 쉽지 않습니다. 다행히 제가 수업 듣는 교수님들은 대부분 미국에서 학위 과정을 밟거나 커리어를 이어 오신 분들이라 영어를 알아듣기 비교적 쉬웠습니다.

일상에서도 영어를 알고 있으면 문제가 안 생깁니다. 기숙사 청소하시는 분이 영어를 못하셔서 중국어로 저에게 뭔가를 알려주려고 하셨을 때가 유일하게 곤란했던 상황 같습니다. 우리는 한중일 사람들을 다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지만서도 한국 스타일의 사람도 중국인인 경우가 많아서, 구분이 쉽지 않았습니다. 묘하게 일본인은 구분이 됩니다.. 현지인들도 동북아시아 사람인 것 같다 싶으면 중국어로 일단 말을 겁니다. 식당에서 주문할 때 중국어 한 번 듣고 "Sorry?" 한 번 해주면 영어로 다시 얘기해주시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저번에 미국 출신 백인 친구에게도 중국어로 물어보는 점원을 본 적이 있어서, 그냥 자기가 편한 언어로 먼저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6. 기숙사/숙소 이용(입실/퇴실 시기, 주의사항 등)

기숙사 입실은 내가 이 날 이 시간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예약을 잡고 기숙사 사무실에 가야 합니다. 기숙사마다 다를 수도 있는데, 제가 받은 기숙사 키는 작은 토른 모양이어서, 자칫하면 잃어버리기 딱 좋은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키링을 하나 사서 달고 다녔고, 대부분 학생들이 학생증과 기숙사키를 달아서 목에 걸고 다닐 수 있게 해서 다니더라고요.

저는 기숙사 2인실에서 살았으며, 룸메이트는 중국계 미국인이었습니다. 어떤 나라 어떤 인종이랑 같은 방이 될 지는 랜덤인 것 같으니 한국인이 룸메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사실 룸메이트 잘 만나면 인맥도 많이 넓어지고 삶이 좀 편해질 수 있는데, 저는 그닥 운이 좋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룸메도 그닥 friendly한 성격이 아니었고 저도 딱히 친해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숙사 방에서는 와이파이가 제공되지 않으며, 본인이 공유기를 들고 와서 설정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콘센트가 그대로 먹히지는 않기 때문에, 230V 어댑터를 2~3개 사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NTU는 KAIST 기숙사 마냥 에어컨을 무한정 틀 수 있는게 아니라, 돈을 내고 에어컨을 써야 합니다. 어떤 기숙사는 현지인만 가지고 있는 카드를 써서 에어컨을 켜야 한다고 들었는데, 일단 제가 살고 있는 기숙사는 애플리케이션과 에어컨 컨트롤이 연동이 되어서 앱으로 요금을 충전해서 쓸 수 있습니다. 1시간에 0.3달러로, 300원 꼴입니다. 제 방은 해가 별로 들지 않아서, 낮에 2시간, 밤에 2시간 정도만 틀어도 큰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퇴실 할 때는 퇴실 예정일보다 최소 2주 일찍 퇴실 신청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안하면 추가금이 나온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7. 학교 생활

저는 KAIST에서 이번 학기에 혼자서 왔고, 룸메이트도 좀 이상한 느낌이고, 초반 행사에서 영어로 말을 제대로 못해서 초반에 인간 관계를 아예 넓히지 못했습니다. 한국인들도 15명인가 있다는데 4달 동안 길 가다가 한국인을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보기가 뵈겠지만 한국어를 들은 적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수업도 온라인이라서 강의실에 가도 다른 학생들을 거의 못 보고, 연구실도 따로 출퇴근 없이 재택으로 연구하는 곳이라서 사람을 볼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4달 간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밥 먹고 혼자 지내긴 했습니다. 저는 운이 조금 안 따라준 케이스인 것 같고, 저 또한 그리 활발한 성격이 아니라 그닥 재미는 없는 한 학기를 보낸 것 같습니다. 초반에 영어로 대화가 제대로 안되니까 자신감을 잃어서 학기 초 행사에 제대로 참여를 하지 않았던게 컸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오히려 좋았는데, 좀 더 활발한 생활을 원하시는 분들은 초반 GEM 행사, 기숙사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9학점에 학부 연구 활동 정도라, 평소에는 그닥 안 바쁘고 프로젝트와 연구 관련 개발이 많았던 4월이 바빴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수업 다녀오고, 연구 활동에서 해야 하는 일 조금 하고, 밤에 게임 좀 하고, 수영 한 번 하러 가고, 1주일에 한 번 싱가포르 관광 다녀오고, 이정도로 무난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싱가폴에는 Recess Week라는게 있어서, 우리나라라면 중간고사를 볼 8주차 쯤에 1주일의 쉬는 기간

을 줍니다. 이때는 밀린 과제나 플젝을 하기도 하고, 그냥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Recess Week 동안 여행을 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때 잠깐 홍콩 여행을 다녀오고, 갔다 와서는 좀 쉬엄쉬엄 연구실 일이랑 플젝 개발을 했었습니다.

기숙사나 학과, NTU Marketplace 등 다양한 텔레그램 채널들이 있습니다. 초반에는 이런 텔레그램 채널들에 들어가서 다양한 정보를 얻는 것도 추천합니다.

8. 교환학생 지원 서비스 & 교환학생에 대한 관심도

GEM Office는 아주 친절하고 교환학생에게 불편한 점이 있으면 최대한 해결해주려고 노력하십니다. 저도 가끔 질문들이 있을 때 GEM에 이메일을 보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다만 답변은 이틀 정도 기다려야 하긴 합니다.

GEM Club이라고 로컬 학생들이 교환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이것저것 진행하는 기구가 있는데, 초반에 캠퍼스 투어, CNY 행사는 괜찮았지만 GEM Buddy 같은 프로그램은 제대로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교환학생이 많기도 하고 애초에 International 학생이 많은 학교라서 사실 말 안하면 교환학생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리고 중국어 회화 수업에서 만난 한 친구가 제가 교환학생인걸 안 후에 로컬 사람들만 가는 곳을 소개시켜주겠다고 한 적이 있어서, 고맙게도 그 친구의 바이크를 얻어타고 호커센터에 밥을 한 번 먹으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교환학생한테 우호적이고 한국인한테도 우호적입니다. 기숙사 행사에 한 번 갔을 때도 한국인이라고 하니깐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갔다왔다는 애들이 막 튀어나오더라고요.

KAIST에선 가급적이면 교환학생하고 팀플을 하기 싫어하기도 했고, 외국인을 불편하게 느낀 적도 많았습니다. 그렇다보니 초반에는 저도 제 스스로를 외국인이라 생각하고 로컬 애들은 교환학생을 그닥 안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소극적이었는데, 싱가포르의 한국과 문화가 아주 다르고 교환학생들한테도 우호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9. 동아리 등 교내·외 활동

동아리는 딱히 안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정보가 없었습니다.

기숙사 농구팀에서 농구 잘 못하는 사람이라도 와서 같이 Training하는 세션을 매주 화요일에 열어서 가고 싶었는데, 저는 화요일 저녁에 정기 회의가 따로 있어서 하지 못했습니다.

10. 여행 등 개인 활동

싱가포르 관광을 많이 했고, 홍콩 여행을 한 번 다녀왔습니다. 사실은 한국 친구들이 싱가포르에 오기로

했었는데, 그 당시 싱가포르에는 1주일 간 테일러 스위트 공연이 있었고, 비행기 값과 숙소 값이 아주 비싸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홍콩으로 여행을 갔었습니다.

싱가포르 자체에도 여기저기 갈만한 장소들이 있습니다. 마리나 베이 샌즈, 차이나타운, 오차드 로드, 보타닉 가든, 아이스크림 박물관, 버드 파라다이스, 나이트 사파리, 리틀 인디아, 이스트코스트, 센토사 섬 (유니버설 스튜디오) 등 주말이나 시간 남는 날 한 번 씩 갔다오기 좋습니다. 어차피 수업 많이 안들으니 까 평일 저녁에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CNY 행사인 Chingay Parade도 꽤 인상 깊었습니다. 혹시 상반기에 교환 가시는 분들은 고려해보세요. 티켓을 사서 들어가야 합니다.

싱가포르 주변 국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정도로 여행을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버스를 타고도 넘어갈 수 있고, 인도네시아의 일부 지역은 배를 타고 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호주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 가는 것보다 가깝고 저렴하다고 해서 여행 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여행을 좋아하신다면 한 번 계획을 짜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11. 그 외 도움 되는 정보 및 주의사항

여기서 지내는 동안 제 블로그에 총 9개의 글을 작성했습니다. 초반에는 매주 쓰다가 갈 수록 소재가 떨어져서 빈도를 확 줄이긴 했습니다. 그래도 만약 NTU로 가시게 되면 그 블로그에 작성한 내용이 도움이 꽤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TU 교환학생\(1\): NTU 캠퍼스에 적응하는 중](#)

12. 파견 소감

다소 충동적인 교환학생 선택으로 초반에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지나고 보니 아주 값진 경험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해외에 가서 문화를 배운다, 시야가 넓어진다고 하는 얘기들은 허세처럼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살았던 4달 동안 그 말의 의미를 실감했고, 어쩌면 제 인생의 방향을 송두리 채 바꿀 수도 있는 충격적인 경험이었다는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했다면 즐거운 생활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 아쉽기도 하지만, 충분히 여러 경험과 휴식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의미가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KAIST와 NTU에게 감사드립니다.

13. 사진 첨부



Pioneer Hall 2인실 내부



Canteen 2



North Spine에서 있었던 스포츠 동아리 행사와 공연



기숙사 조리실



Chingay Parade 2024